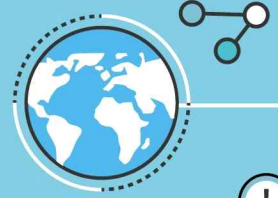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IRA, 미국·EU】 미국-EU IRA 갈등,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같은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

【코로나19, 중국】 코로나 방역 완화 밝혔던 중국, 코로나 재확산으로 방역 비상

【COP27, 세계】 COP27, 개도국 손실·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합의, 인도 모든 화석연료 축소 제안

【원유, 러시아】 IEA "러 원유 수출, 서방 제재에 12월 대폭 감소 전망"

【그린수소·암모니아, 한국·사우디】 韓기업들, 네옴시티에 그린수소·암모니아 공장 건설 추진

【배터리, 중국】 세계 전기차 업계, 中 의존도 높은 LFP 배터리 도입 계획에 박차

【곡물, 러시아·카자흐스탄】 러시아, 국제제재 속 카자흐에 곡물운송 통과세 인하 요청

【환율, 일본】 日, 엔화 약세로 인한 기업 도산 급증



GVC 뉴스 더하기

① 日 차세대 반도체 국내 양산 위해 산학관 협력 新회사 설립

② '22년 G20 정상회의, 공급망 관련 주요 선언



GVC 기초상식

미국의 입법 절차 1편 <美 하원 입법과정>



GVC 돌보기

「한-싱가포르 디지털등반자협정」 주요 내용



GVC 전문가

최근 對중국 무역적자 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강내영, 조의윤, 도원빈



더 찾아보기

2022 카타르 월드컵



GVC 소식통

① 공급망 관련 설명회 및 세미나 안내

②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최신 GVC 해외 이슈

■ **[IRA, 미국·EU] 미국-EU IRA 갈등,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같은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

- 11.20일 폴리τικο에 따르면 EU는 미국의 IRA 시행에 따른 막대한 보조금으로 유럽 내 기업투자가 위축되는 데에 위기를 느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자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 제기
 - IRA는 목표달성(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40% 감소, ~30)을 위해 EV·재생E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3,750억 달러 투입
 - 하지만 세액 공제와 보조금 등의 혜택을 복미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으로 한정해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사실상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
- 유럽은 이미 기업의 생산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운데(에너지 가격급등 등) 美 보조금으로 더 불리해짐
 - 실제로 美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미국으로 배터리 생산지 변경, 독일 폴크스바겐은 미국 사업 확장 발표,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은 독일 생산량을 줄이고 미국 텍사스 제철소에 대한 투자 확대 방침을 밝힘
- 이에 EU 기업도 IRA의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미국과 협상 중으로, 11.4일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관련 TF 회의를 처음 개최했지만,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EU에서는 미국에 강경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독일 솔츠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10.26일 파리에서 IRA의 전기차 보조금이 시장 왜곡 조치라는 것에 의견을 함께하고 강경히 대응하기로 함,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베르트 랑게 위원장은 미국과 EU가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을 WTO에 제소하고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수 있다고 밝힘
- 하지만 미국과 EU가 러시아·중국을 상대로 단일 대오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EU에서는 전면적 무역분쟁으로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자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
 - EU 내부 시장 담당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유럽이 배터리, 반도체, 수소 등 핵심 산업에서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유럽 연대 펀드'를 조성하자고 주장, 독일도 이러한 방안을 고려 중
- 1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3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에서 IRA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망으로, 제2차 TTC에서(5.15일) 양측은 반도체산업 보조금 경쟁지제 및 관련 정보교환을 합의한 바 있음

출처: 연합뉴스(22.11.21)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 **[코로나19, 중국] 코로나 방역 완화 밝혔던 중국, 코로나 재확산으로 방역 비상**

- 11.11일 중국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합동 방역 통제기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최적화하여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예방사업을 취하는 것에 대한 통지문>을 발표하며, 해외 입국자 및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함
 - 해외입국자 밀접 접촉자 격리기간은 '7+3일'(집중격리 7일 + 자가격리 3일)에서 '5+3일'로 조정
 - 확진자가 나온 항공편에 대해 최대 2주 운항을 중단시키는 기존 규정을 취소하고 탑승전 28시간 이내 PCR 검사 증명서는 기존 2회분에서 1회분으로 감소시켰음
- 그러나,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6일 연속 2만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중국 정부는 방역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음
 - 11.21일 베이징은 처음으로 신규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섰으며, 광둥, 충칭, 간쑤 등에서도 확산세 지속
 - 블룸버그 통신은 11.22일 "중국 GDP의 19.9%를 차지하는 지역이 감염병 봉쇄 및 규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도
 - 방역정책 총괄 책임자인 쑨춘란 부총리 11.21일 충칭을 방문해 "제로코로나" 원칙 견지 및 위험지역 엄격 관리 지시

출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22.11.17), 서울신문(11.22) 등 언론보도 종합

■ [COP27, 세계] COP27, 개도국 손실·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합의, 인도 모든 화석연료 축소 제안

-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11.20)가 이뤄졌음
 - 기금은 기후변화가 촉발한 홍수·가뭄·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며 아프리카·아시아 대륙 등 개도국들이 지원 대상
 - 참여국 모두가 합의한 결정문에는 선진국과 국제 금융기관이 손실과 피해 기금에 출자하되 이것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포함. 기금을 어느 국가가 부담해야 할지, 어떤 종류의 피해를 보상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등 보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빠졌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
- 한편, 인도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모든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축소'를 제안했으나 아프리카 다수 국가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우려를 표명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 해당 제안은 기존의 COP26 석탄 사용 축소 합의에서 '모든 화석연료'로 대상을 확장한 것으로 세계 2위 석탄 수입국인 인도가 석탄 사용 중단에 대한 관심을 기타 화석연료로 분산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됨
 - 우간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방식의 원유·가스 자원개발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프리카는 '단계적 축소'의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한 인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 EU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인도가 제안한 모든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축소 제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이전 합의(COP26)의 후퇴없는 이행을 지지 조건으로 제시
 - EU는 기존의 석탄 사용 축소 합의(COP26)에 추가적으로 기타 화석연료의 점진적 사용축소를 지지하면서 EU가 각국의 에너지 투자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각국이 화석연료 프로젝트 투자시 손실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
 - 다만, EU는 천연가스는 그린수소·암모니아 등은 친환경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석탄·원유와는 다르다고 언급함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11.17)

■ [원유, 러시아] IEA "러 원유 수출, 서방 제재에 12월 대폭 감소 전망"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10월 러시아산 원유 수출에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12월에는 서방의 제재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며 '러시아가 세계 다른 국가에 얼마나 많이 공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밝힘'
 - '22.10월 러시아의 對EU 원유 수출은 하루 150만 배럴 수준이지만 EU의 금지령 발효로 인해 12월부터 하루 110만 배럴의 수출이 중단될 예정
- 12.5일부터 EU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운송에 대한 자국 기업의 자금조달·보험제공을 금지함 또한 일부 G7 주도 가격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업계는 제재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함
- 한편, 독일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저장 용량 100억㎥에 달하는 첫 LNG 수입 터미널을 북해 빌헬름스하펜에 완공하였으며 이는 독일의 에너지 위기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Wall Street Journal(22.11.15), 뉴시스(22.11.16) 등 언론보도 KOTRA 유럽지역본부 종합

■ [그린수소·암모니아, 한국·사우디] 韓기업들, 네옴시티에 그린수소·암모니아 공장 건설 추진

-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韓 공기업·민간기업 5개社(한국전력·한국남부발전·한국석유공사·포스코·삼성물산)가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공장 건설 및 운영을 제안했으며,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에 맞춰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65억 달러(약 8조5천억 원) 규모의 MOU 체결
 - 차세대 에너지로 꼽히는 그린수소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분해해 생산하는 친환경 수소로, 수소와 질소가 결합된 암모니아 상태로 운송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 프로젝트는 사우디 홍해 연안 안부시에 12만 평(39만 6,694㎡), 연간생산량 120만톤 규모의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공장을 짓고 20년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상 건설기간은 '25~'29년임

출처: 연합뉴스(22.11.16)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배터리, 중국】 세계 전기차 업계, 中 의존도 높은 LFP 배터리 도입 계획에 박차

- WSJ에 따르면 테슬라·포드·리비안 등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NCM(니켈·코발트·망간)을 주요 원재료로 하는 기존의 삼원계 배터리보다 단가가 낮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사용을 계획 중
 - 닝더스다이(CATL, 세계 배터리 점유율 1위)사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LFP 배터리는 통상적으로 삼원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고 주행가능 거리가 짧아 몇 년 전까지 중국을 겨냥한 중저가 모델에 주로 쓰임
 - 올해 초 니켈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니켈 가격이 급등하고 코발트도 주요 공급원인 콩고 광산의 노동자 인권·환경 문제가 제기되자 세계 주요 전기차 기업들이 저렴한 LFP 배터리 도입을 검토
 - 투자은행 UBS의 전기차 배터리 리서치 책임자 팀 부시에 따르면 '30년까지 세계 차량용 배터리 시장에서 LFP 배터리 비중 전망치는 기존 15%에서 최근 40%로 상승
- 한편 미국이 향후 자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함에 따라 LFP 배터리 공급망의 과도한 對中 의존도에 대한 부담 증가
 - 이에 10월 포드 CEO 짐 팔리는 배터리의 중국 수입을 향후 북미 생산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또한 최근 미국·유럽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저렴한 나트륨과 황을 활용한 배터리 개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상용화될 경우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최대 2/3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
 - 하지만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충전 능력과 리튬·황 배터리의 부식 속도 문제 등을 해결할 기술적 진전 필요

출처: Wall Street Journal(22.11.15), 연합뉴스(22.11.16)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곡물, 러시아·카자흐스탄】 러시아, 국제제재 속 카자흐에 곡물운송 통과세 인하 요청

- 국제사회의 제재로 곡물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에 곡물 운송 통과세 인하를 요청. 카자흐스탄 현지매체 뉴타임스는 러시아 철도청이 옴스크, 오렌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지역 철도국, 카자흐스탄 철도청 등과 함께 곡물 운송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에게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를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데 장애물이 남아 있다'며 고충을 토로한 바 있음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이 포함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회원국 영토를 경유하는 운송의 경우 독립국가연합(CIS)의 관세 정책에 따라 국내 철도운임보다 높은 운송료를 적용함
 - 알렉산드르 코르부트 러시아 곡물연합회 부회장은 "카자흐스탄을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여 중국으로 운송하는 방법이 모두 차단된 상황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운송 통과세 인하시 곡물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러시아 곡물을 재수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
- 드미트리 파트루셰프 러시아 농업 장관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러시아의 곡물 수확기 동안 세계 시장에 적어도 5천만t 이상의 곡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출처: 연합뉴스(22.11.16) 등 언론보도 KOTRA CIS지역본부 종합

■ 【환율, 일본】 日, 엔화 약세로 인한 기업 도산 급증

- 급격한 엔저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실적이 악화되며 도산에 이르는 '엔저 도산' 일본 기업이 급증하는 중
 - 제국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2.1~10월 엔저의 여파로 도산한 기업은 21곳에 이르며, 특히 달러당 140엔대를 기록한 여름철 이후 8~10월간 발생한 도산이 19건임
 - 업종별로는 식재료 가격급등으로 인해 식품 관련이 6건, 섬유 관련 5건, 기계·가구 관련이 각각 2건임
- 반면, 기업규모·업종에 따라 엔저로 호실적 달성 기업도 생겨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
 - 도산 기업 중 60% 이상이 부채 규모가 5억엔 미만인 중소·영세기업으로, 이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엔화 약세시 발생하는 매입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기 때문임
 - 반면, 엔저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사업 이익도 엔화 환산시 증가시키기 때문에 대기업과 수출·해운업계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22.11.21)



GVC 뉴스더하기 ① : 日 차세대 반도체 국내 양산 위해 신학관 협력 新회사 설립

◆ 일본은 2010년대 최첨단 반도체 제품 개발 등에 투자하지 못하여 국제 경쟁에서 승기를 잡지 못했다. 10년의 공백을 되찾는 마지막 기회를 만들고자 일본은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新회사 'Rapidus' 및 日·美 연계 연구거점 설립을 발표했다(11.11). 주요 동향에 대해 살펴보자

■ 반도체 新회사 'Rapidus' 설립 개요

- (기업 개요) 차세대 반도체 자국내 양산(27년 양산 목표)을 위해 일본 정부의 지원 및 대표기업 8개社 출자 등을 기반으로 신규 기업 'Rapidus' 설립 발표(11.11).
 - (출자 기업 및 금액) 도요타자동차, NTT, 소니그룹, NEC, 소프트뱅크, 덴소, 키옥시아HD가 각각 10억엔, 미쓰비시UFJ은행 3억엔을 출자하여 총 73억엔 규모
 - (정부 지원)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공모 중인 첨단반도체 제조위탁사업에 응모, 700억엔 지원 결정
 - (임원진) 회장은 도쿄일렉트론의 前사장 히가시 테츠로, 사장은 최근까지 美웨스턴디지털 일본 법인 사장을 맡아온 코이케 아쓰요시가 취임
- (설립 목적) 대만에 생산을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는 일본과 미국이 경제안정보장의 핵심으로 정의. 양국이 협력해 추진하는 차세대 제품의 연구 성과를 살려 日 국내에서의 안정적 공급체제 구축
- (추진 방향) 「Beyond 2나노」라 불리는 차세대 연산용 로직 반도체의 제조 기술을 확립하여 '27년까지 제조 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로직 반도체) 스마트폰과 데이터 센터 등의 처리 성능을 좌우함. 고도의 통신망과 완전자율주행에도 높은 연산성을 가진 반도체나 관련 기술이 중요해짐
 - 삼성전자, TSMC는 3나노 제품 양산기술을 확립했으며 2나노 제품도 '25년 양산할 계획'에 반해 일본에서 가동하는 로직 반도체의 제조라인은 40나노 제품이 최신으로 '10년대의 첨단개발 경쟁에서 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따라가지 못한 실정
 -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건설 중인 TSMC 거점에서는 12~28나노 제품의 생산을 계획하는 등 제조 기반의 확보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

■ 일·미 연계 연구거점 개요

-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대신은 日·美 연계 연구거점 개요 발표(11.11). 명칭은 '기술연구조합 최첨단 반도체 기술센터(LSTC)'로 일본 정부는 '22년도 2차 추경 예산안에 약 3,500억엔(약 3조 3460억원) 예산 계상
- 일본과 미국은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에 합의. 차세대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확립 및 제조 능력 확보 담당하며, 새롭게 설립된 Rapidus는 동 연구 성과가 양산으로 이어지도록 함

- 연구거점은 '22년내 설치되어,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과도 연계할 전망

- (기업) 하기우다 前경제산업대신이 미국을 방문하여 협력을 확인한 미국 IBM과 벨기에 imec 등이 후보
- (연구기관) 도쿄대학, 이화학연구소,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도쿄공업대학, 도호쿠대학, NIMS(물질재료연구기구) 등

< 일본 반도체 산업 육성 동향 >

'21.2월	TSMC, 일본에 개발거점 설치 발표
6월	경제산업성, 반도체 전략 정리
10월	TSMC, 구마모토현에 공장 건설 발표
12월	첨단품의 생산거점 확보에 6,170억엔 보조금 결정
'22.5월	일미, 반도체 협력 기본원칙에 합의
7월	일미 협력의 연구개발조직 설립 결정
10월	기시다 총리,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1.3조엔 투자 표명



GVC 뉴스더하기② : '22년 G20 정상회의, 공급망 관련 주요 선언

◆ 11.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7차 G20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위기 등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거시정책 협력과 견고한 공조를 약속했다. 정상선언문 중 공급망 관련 사항을 살펴보자

■ G20 정상회의 개요

- G20(Group of Twenty)는 G7을 포함한 19개 주요 경제국·신흥국 및 EU*의 협의체로, 의장국이 1년의 임기 동안 사무국 역할을 하며 **경제 관련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상회의**의 개최
 - *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이외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러시아, 터키, 남아공 및 EU
- G20은 전세계 GDP의 85%, 인구의 2/3, 교역량의 약 75%를 차지하는 만큼 G20에서 결정되는 현안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
- 이번 제17차 G20 정상회의는 **'함께 회복하고 더 강하게 회복하자(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를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야기한 **글로벌 식량 및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문제, 경기 침체 등 도전과제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등 논의**

■ 공급망 관련 주요 선언 내용

① 식량 공급망의 기능 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지지

- 우크라이나 항구로부터의 곡물·식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와 러시아-UN 사무국간 체결된 **러-우 곡물·식품·비료의 원활한 운송** 등에 관한 MOU 지지
- 농어민 생계 개선, 식량 공급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식량 시스템에서의 디지털 혁신** 촉진
 - 정책 대응 지원을 위한 **조기 경보 도구**로써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을 지속적으로 강화

② 에너지 안보와 복원력, 시장의 안정성 제고

-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 투명성, 가격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 이번 회담에서 발표된 발리 협정(Bali Compact)과 발리 에너지 전환 로드맵(Bali Energy Transition Roadmap)을 지침으로 추진
- 에너지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강화
- 에너지 믹스와 시스템 다양화,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 목표 달성
 - 재생에너지원 등 무배출·저배출 발전원,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방안, 탄소 저감 및 제거 기술 등을 각국의 여건에 맞춰 신속하게 도입·확대

③ 공급망 문제 대응을 위한 다자무역체제(MTS, Multilateral Trading System) 및 무역·투자 협력 강화

-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한 세계 경제의 복원력과 회복 지원에 필수적, WTO 개혁이 다자무역체제 신뢰 강화의 핵심
 - 모두에게 우호적인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여건을 지속 보장**
 - 제13차 WTO 각료회의 개최시까지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 개혁 등 기능 개선**을 위해 논의
- 무역과 기후·환경 정책이 상호 보완적이고 WTO에 부합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해야 함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투자를 통해 다운스트림 제조, 디지털 무역, 서비스와 같은 생산성이 높은** 부문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해외 투자자들과 특히 중소기업 등 지역 기업간 연계 촉진



GVC 기초상식 : 미국의 입법 절차 1편 <美 하원 입법과정>

-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CHIPS 및 IRA의 법제화와 미국 입법절차」 요약

◆ 2022년 8월 미국에서는 반도체법(CHIPS)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 법안들이 법률로 제정되었다. 미국에서 법안(Bill)이 법률(Act)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국의 입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상·하원 및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미국 입법절차 시리즈>

37호: 하원 입법 과정

38호: 상원 입법과 양원의 이견 조정

1. 의회의 구성

- 美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 및 하원에서 동일한 법안(companion bill)이 각각 통과되어야 함. 다만, 양원은 의원의 임기, 의사 운영 방식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

<美 의회 상·하원 차이점 비교>

구분	상원	하원
임기	6년	2년
의원 수	100명	435명
고유권한	조약체결 동의권, 고위공직자 인준권	세입/세출 법안 발의권

2. 하원 입법 과정

- **[법안 발의]** 공식적으로 개개인 의원들은 법안(Bills) 및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을 발의할 수 있으며, 법안이 제출되면 하원의장은 법안의 성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 합동결의안 : 법률의 단순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쟁점 있는 내용이 상·하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당의 지도부가 합동결의안을 만들어 법안 형식으로 통과시킬 때 사용
- **[위원회 심사]**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회부되면 동 상임위 위원장은 제출된 법안 중 심사 가치가 있는 법안을 선택하여 소위원회로 회부. 이후 소위원회는 동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청문회(hearing) 및 축조심사(mark-up)를 진행
 - (상임위 위원장) 美 하원에서 다수당 의원들은 상임위 위원장직을 차지하여 회부된 법안 검토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절대 권력을 행사
 - (상임위 최종 의결) 법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가 제출된 상임위에서 소속 의원들은 법안 내용을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으며, 이후 상임위 의사정족수 과반 이상이 동 최종 수정안에 찬성하면 위원회는 법안 및 심사보고서를 하원 본회의에 송부
- **[본회의 심의]** 상임위원회가 법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하원 지도부는 하원 심의를 위한 의안 목록(calendar)을 결정
 - (특별규칙) 세입·세출 법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은 美하원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가 각 법안에 따라 심사 규정 및 기간을 정한 특별규칙(special rule)을 채택하여 입법 절차를 진행
 - (재회부동의) 최종 수정안이 본회의에 채택되어도 이에 반대하는 의원은 재회부동의(recommittal motion)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회부동의를 제기한 의원은 동 법안의 폐기를 목적으로 소관위원회로 되돌려 보내거나, 또는 특정 지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내 개정안을 요구할 수 있음
- 이후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전자 표결 방식으로 진행됨. 최종 수정 법안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할 경우 법안이 통과



GVC 돋보기 :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주요 내용

-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2.11.21(月) 탄시렝(Tan See Le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KSDPA')에 서명하여 협상 절차를 완료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 ※ 보도자료 및 상세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

■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주요 내용

- (개요)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조항을 균형있게 반영(AI·핀테크·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 양국이 관심있는 협력 분야 포함)
-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화된 무역 문서 활용 촉진 △신속한 통관절차 보장 △전자결제 △전자 인증·서명 △전자 송장 등 국경간 무역 과정 전반을 전자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항들을 규정
 - 또한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하고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자국의 제품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적 형식의 제품 및 콘텐츠의 자유로운 교역을 가능하도록 함
-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국경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개인정보 포함)을 보장하고 △상대국 영역에서의 사업수행을 조건으로 컴퓨터 설비를 자국내 위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여 자유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 (다만,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달성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예외적으로 인정)
 - 또한 △소프트웨어의 핵심요소인 소스 코드나 알고리즘에 대해 이전·공개하도록 하거나 △ICT 제품에 대해 특정 암호 기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게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이 도입되는 것을 방지함
- (온라인 소비자 활성화) 기업과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교역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소비자 보호 △스팸 메시지 규제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국내법 체계를 도입·유지하고 국경간 발생하는 소비자 이익 침해를 규제하는 데 협력하도록 함
 - 나아가 △소비자의 인터넷 접근 권한을 보장하고 △사이버보안 분야 자격 상호인정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한-싱가포르 DPA 분야별 주요 조항 요약〉

분야	주요 조항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적전송 무관세, 전자인증·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 종이서류 없는 무역, 특송화물 등
디지털 비즈니스활성화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국경간 정보이전 원활화,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금지, 소스 코드 공개 요구금지, 인공지능(AI)·핀테크·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
온라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소비자 보호, 스팸 메시지 규제, 사이버 보안 등

■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의 의의

- ① 디지털 방식을 통한 우리 창업·중소기업의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
 -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등 아세안 전역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한류 콘텐츠를 좋아하고 인터넷 쇼핑에 익숙한 젊은 아세안 소비자들을 우리 기업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무역과정 전자화, 통관절차 간소화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창업·중소 기업의 무역 참여를 더욱 손쉽게 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우리 소비재(화장품, 의류, 식품 등)의 아세안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② 데이터를 활용한 글로벌 제조혁신 기반 구축
 - 싱가포르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기업환경과 우리기업의 탄탄한 제조 경쟁력이 합쳐져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활성화 기대
- ③ 아태지역 및 글로벌 디지털통상 규범 정립에 주도적 역할
 - 싱가포르는 호주·일본과 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동의장국으로 글로벌 규범형성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로 아태지역 및 글로벌 디지털통상 규범 정립에 주도적 역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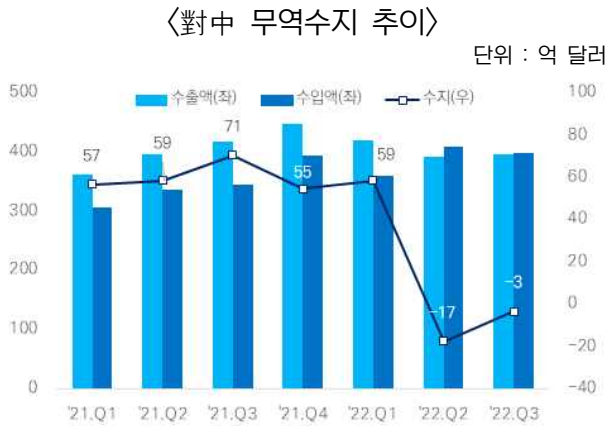
GVC 전문가: 최근 對중국 무역적자 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강내영, 조의윤, 도원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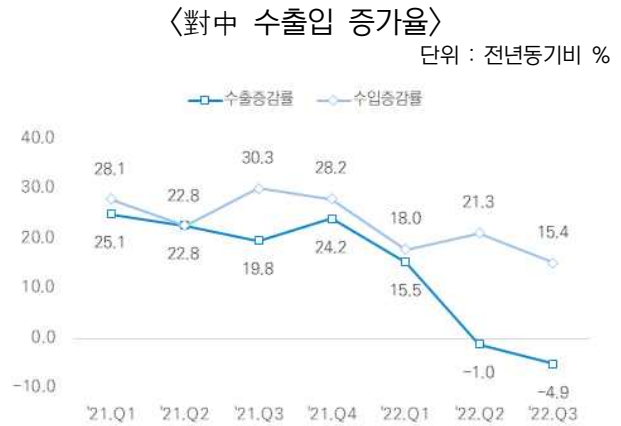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對中 무역수지는 2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으로 나눠 분석해보자

■ 우리나라의 對中 무역수지는 최근 2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

- 對中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됨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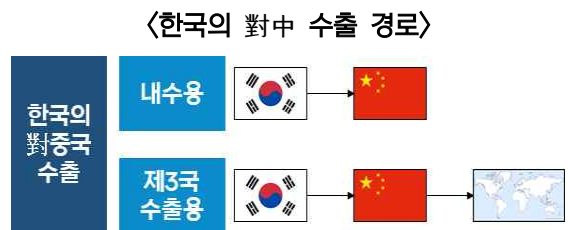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구조적 요인 : 중국의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어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이 감소

- 중국의 산업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중국의 국산화율은 지속 높아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中 내수용 수출이 감소하고 있음

- 중국 내수에서 최종 소비되는 수입중간재·최종재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01~'07)에는 연평균 19.6%씩 증가했으나 최근('10~'21)에는 10.2% 증가에 그침



- 또한 중국의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제3국 수출용 對中 수출도 감소

- 제3국 최종 소비를 위해 중국의 생산·수출 과정에서 수입해오던 중간재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01~'07) 연평균 32.4% 증가하다가 금융위기 이후('10~'21)에는 8.9% 증가하며 큰 폭(-23.5%p) 감소

■ 경기적 요인 : 반도체, 정밀화학원료 등 주요 수입품목의 급격한 단가 상승으로 對中 수입 증가

- 우리나라의 對中 상위 수입품목 5개의 수입액이 전체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액이 증가한 원인은 반도체, 정밀화학원료, 컴퓨터 등 주요 수입품목의 수입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단가가 상승했기 때문

- 단가요인 > 물량요인 : 수입단가 상승이 수입액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미
- 단가요인 < 물량요인 : 수입물량 증가가 수입액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미

〈對中 주요 수입품목 단가·물량 요인분해〉

단위 : 백만 달러, 전년동기비 %

품목명	수입액(증가율)	단가요인	물량요인
반도체	20,378 (27.3)	122.7	-22.7
정밀화학원료	11,671 (94.9)	117.9	-17.9
컴퓨터	7,552 (3.7)	287.7	-187.7
건전지및축전지	4,030 (83.7)	36.8	63.2
산업용전기기기	3,974 (12.3)	104.4	-4.4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22년 1~9월 누계 기준

더 찾아보기 : 2022 카타르 월드컵

◆ 지구촌 최대 축구 잔치인 '월드컵'이 11.20일 카타르에서 개막하였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 현지 방문 시 주의사항 : [카타르월드컵 안전여행 수칙](#)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FIFA 월드컵

- FIFA(국제축구연맹)의 주관하에 1930년부터 4년에 한 번 개최되어 세계 최고의 축구 국가대표팀을 가리는 국가대항전으로, 단일 종목 스포츠 행사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대회

참가	FIFA에 가입한 '축구 협회' (한 국가에 여러 축구 협회가 존재하는 경우 따로 출전 가능)
경기 방식	조별 리그(32개국 8개 조) → 16강 토너먼트
역대 우승국	브라질(5회), 독일·이탈리아(4회), 아르헨티나·프랑스·우루과이(2회), 잉글랜드·스페인(1회)
트로피	쥘 리메(Jules Rimet, FIFA 3대 회장) 컵을 대체한 現 월드컵 트로피는 독일 월드컵(74년)에서 우승국인 독일에 처음으로 수여되었으며,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13번째로 사용되는 것임 * '30년 초대 우루과이 월드컵 트로피로 역대 3회 우승한 브라질에게 영구 수여(70년)



2022 카타르 월드컵

- (개최지) 카타르 [State of Qatar, دولة قطر]
- (기간) 2022.11.20~12.18(현지시각 기준)
2022.11.21~12.19(한국 기준)



<2022 카타르 월드컵 특징>

- ▶ COVID-19 유행 후 개막하는 최초의 FIFA 월드컵
- ▶ 최초로 중동에서 개최, 겨울 월드컵, 아시아 국가 최초 월드컵 단독 개최
- ▶ 개최지 중 역대 면적이 가장 좁은 나라(11,571km²)
- ▶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 도입 ▶ 월드컵 엔트리 23인 → 26인
- ▶ 32개국이 진출하는 마지막 월드컵(26년 캐나다·멕시코·미국 공동 개최 월드컵부터 48개국 체제로 변경)

* 경기장 내 12개의 추적 카메라로 모든 선수의 움직임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오프사이드 여부를 정확히 판정

조 편성 및 대한민국 경기 일정

☞ [2022 카타르 월드컵 전체 경기 일정](#)

● 조 편성

참가국 - 32개국		조 편성
아프리카(5)	가나, 모로코, 세네갈, 카메룬, 튀니지	▶ A조 : 에콰도르, 네덜란드, 카타르, 세네갈 ▶ B조 : 잉글랜드, 이란, 미국, 웨일스 ▶ C조 : 아르헨티나, 멕시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 D조 : 호주, 덴마크, 프랑스, 튀니지 ▶ E조 : 코스타리카, 독일, 일본, 스페인 ▶ F조 : 벨기에, 캐나다, 크로아티아, 모로코 ▶ G조 : 브라질, 카메룬, 세르비아, 스위스 ▶ H조 : 가나, 대한민국, 포르투갈, 우루과이
아시아(6)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일본, 카타르, 호주	
유럽(13)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웨일스, 잉글랜드,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아메리카(8)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캐나다, 코스타리카	

● 대한민국 경기 일정

※ 한국시간 기준, (경기장)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대한민국	11.24(목) 22:00	우루과이
대한민국	11.28(월) 22:00	가나
대한민국	12.3(토) 00:00	포르투갈

- 결승전 : 12월 19일 오전 0시(현지 시각 12월 18일 오후 6시)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개최 예정



GVC 소식통 ① : 공급망 관련 설명회 및 세미나 안내





[KOTRA]

■ 2023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설명회

-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와 주목해야 할 2023년 기술·소비 트렌드 관련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12월 1일(목) 13:30~16:30 / COEX 컨퍼런스룸(남) 300호(3F)
 - 신청기한 : 11월 28일(월) 限
 - 프로그램 (해당 식순은 오프라인 행사 기준이며 영상 녹화하며 온라인 콘텐츠로 2주간 서비스 제공 예정)

시간	주요 내용	연사
13:35~13:40	개회사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13:40~14:30	① 글로벌 트렌드 - 2023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	KOTRA 무역투자연구센터
14:30~15:20	② 기술 트렌드 - 급변하는 기술로부터 비즈니스 기회를 -	성균관대학교 최재봉 교수
15:20~15:30	휴식	
15:30~16:20	③ 소비 트렌드 - 2023년 소비자는 어디로 모이는가? -	생활변화관측소 박현영 소장
16:20~16:30	질의응답 및 폐회	

- 참가신청 : 우측 해당하는 QR코드 접속 → 하단 '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

	(일반)	(할인 대상)
* (할인 대상) 사회적 경제기업, 소상공인, ESG 우수 중소기업 [서류 제출 시 20% 할인]	55,000원	44,000원
		
① 오프라인 (55,000원 [VAT 포함]) 설명회 당일 현장 참여(120명 한정)		
- 도서 2종 증정		
「2023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지금 해외에서 가장 핫한 창업 트렌드」	(일반)	(할인 대상)
	22,000원	17,600원
		
② 온라인 (22,000원 [VAT 포함])		
- 설명회 이후 12월 5일(월)~18일(일) 內 상시 녹화본 시청		
- 문의처 : KOTRA 무역투자연구센터 박지현 대리 ☎ 02-3460-7589 / rc_hq@kotra.or.kr

[한국무역협회]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학술 세미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산학협동재단)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과 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대응 학술 세미나
 - 일시/장소 : 11월 25일(금), 15:00~17:30 /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주요 내용 : ▲해외주요국의 글로벌 기술패권 관련 정책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우리나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수출입 기종점 데이터를 활용한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공급망 리스크 조기경보 :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 ESG 경영과 생태계 중심의 공급망 혁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항만물류 업계의 대응전략 연구 ▲글로벌 공급망 충격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참가신청 : 11월 24일(목)까지 [신청 링크\(클릭\)](#)로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GVC산업분석TF ☎ 02-6000-5207

GVC 소식통 ②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KOTRA]

■ [항공운송] 프랑크푸르트(독일), 도쿄(일본) 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사업 (KOTRA·대한항공)

- (사업개요) 항공운송 부족 애로 지속 → 수출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운송 증편(~2212월)
 < 항공 - 항차 정보 >

노선	출발예정일(매주)	예약마감일	서류/화물(입고)마감
인천(ICN) → 독일(FRA)	수요일	화요일 12:00	화요일 16:00 이전
	일요일	금요일 12:00	금요일 16:00 이전
인천(ICN) → 도쿄(NRT)	화요일	월요일 12:00	월요일 15:00 이전
	금요일	목요일 12:00	목요일 15:00 이전

- (상세내용) [KOTRA-대한항공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일반 화물 대상(냉장·냉동·위험물 등 특수화물 진행 불가)/ 전용 스페이스: 편당 3톤 내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항공물류수행사 ☎ 02-310-6554

■ [해상운송]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박 운송 지원 안내 (KOTRA·삼성SDS·CJ대한통운)

- (사업내용) 선복부족 애로사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기업이 기 확보한 정기선복의 일부를 국내 중소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기 수출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및 KOTRA 회원사
- (신청기간) 추후 공시 시까지 수시 접수(접수 물량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
- (서비스 노선) 출항: 부산항 / 도착: 하단 참조

< 해상 - 출항 정보 >

운송지원사	구분	가용선복(TEU/Week)	주요기항지
CJ대한통운	일본	10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동호주	5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북미 서안	3	(서안) 엘에이, 롱비치, 시애틀, 타코마
	북미 동안	2	(동안) 뉴욕, 사바나, 노퍽
	중남미 서안	3	(서안) 만자날로
	중남미 동안	2	(동안) 산토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타자이, 몬테비데오
	유럽	15	안트워프,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디니아, 르하브르
	서지중해	5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제노아
	동지중해	5	이스탄불, 이즈미트
	아프리카	5	더반, 뭄바사 ▶서아프리카 제외
삼성 SDS	중동	7	제벨알리, 담만, 소하르
	서남아	8	나바세바, 첸나이, 카투팔리 ▶방글라데시 제외
	북미 서안	40	LA, 롱비치, 오클랜드, 시애틀, 밴쿠버
	북미 동안	10	뉴욕, 사바나
	북유럽	20	로테르담, 함부르크, 앤트워프
	지중해	10	제노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포스
	남미 동안	20	산토스, 이타자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시아	20	호치민, 방콕, 람차방, 포트켈랑, 하이퐁(추가)	

- (상세내용)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 또는 [삼성SDS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① CJ대한통운: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② 삼성SDS: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

기업명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해상운송]															
 (포스코)	[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벌크화물 수출 중소기업(철강제품) or 포워드 가능품목: 코일·판재류·선재 등 (이외 품목은 추가 확인 필요) 출항지: 포항항/광양항 → 도착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내륙운임은 수출기업 부담) 	포스코 수출물류 합적 플랫폼 가입 후 합적 신청 사업안내 (클릭)													
	[자동차운반선(RORO) 활용 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Breakbulk 화물 수출 중소기업 or 포워드 출항지: 광양항/마산항/평택항 → 도착지: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 운송신청 화물에 대한 현대글로벌로비스의 추가 확인 후 합적·운송 실시 ※ 신청 화물에 대한 선적 확정 시, 출항·선적일정 개별 공지 	신청서 작성/제출 (logistics01@kita.or.kr) 사업안내 (클릭)													
 (고려해운)	[인트라 아시아 중소화주 수출선박 제공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선적 희망일로부터 22일 이상 여유있는 수출 중소기업 (포워드 신청불가) 가능품목: 일반 FCL 컨테이너화물 (LCL 불가) 출항지: 부산항 → 도착지: 인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사업안내에서 희망 국가 클릭 후 사업신청 사업안내 (클릭)													
[항공운송]															
 (대한항공)	[중소 수출기업 전용 스페이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수출 중소제조업체 (포워드 신청불가) 가능품목: 일반 항공화물 (특수화물 불가) 	온라인 신청서 제출 사업안내(클릭)													
	<table border="1"> <thead> <tr> <th>노선</th> <th>출항일</th> <th>예약 마감</th> <th>서류/화물 (입고)마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인천 → 로스앤젤레스</td> <td>수요일</td> <td>월요일 12:00</td> <td>화요일 12:00 이전</td> </tr> <tr> <td>일요일</td> <td>목요일 12:00</td> <td>금요일 12:00 이전</td> </tr> </tbody> </table>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복합운송]															
 (LX판토스)	[유럽·러시아항 해상·철도 복합운송 선복지원 및 운임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12월 유럽·러시아항 추가 운임 할인 지원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드 신청불가) 가능품목: 20피트·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LCL 불가, TCR은 40ft만 가능) 	(운임할인 및 지원사업) 사업안내 (클릭)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해상+철도 복합운송</th> <th>내륙운송</th> </tr> <tr> <th>노선</th> <th>출발지</th> <th>도착지</th> <th>최종도착지</th> </tr> </thead> <tbody> <tr> <td>TCR</td> <td>인천, 평택</td> <td rowspan="2">폴란드 말라세비치</td> <td rowspan="2">유럽 전역</td> </tr> <tr> <td>TSR</td> <td>부산</td> </tr> </tbody> </table>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 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TSR	부산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 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TSR	부산														
[물류 보관]															
 (칼트로시스)	[부산신항 물류센터 컨테이너 화물 보관장소 제공 및 요금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물류센터 상하차 및 보관, 물류센터-CY터미널 셔틀 할인가 제공 가능품목: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대상 (특수 컨테이너 문의 필요) ※ 수출업체→물류센터 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드/운송사 통해 직접수배) 	신청서 작성/제출 (hjo117@kita.net) 사업안내 (클릭)													
 (포스코플로우)	“신규” [포스코플로우 유럽 물류센터(코퍼·앤트워프)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유럽 현지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국내기업이 포스코플로우 물류인프라(해상운송·통관·하역·보관·내륙운송 등)를 공동 이용 사업기간: 2022.11.28.~2023.상반기 (잠정, 변동 가능) 지원대상: 국내 모든 수출기업 (포워드 포함) 	11.25일까지 온라인 신청서 제출 사업안내 (클릭)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7617 / 5754 (월-금 09:00-18:00)
 ✉ logistics01@kita.or.kr / hjo117@kita.net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VC)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을 중심*으로 '22.2.9일 출범 ⇨ 산업·통상·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지원

*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분석실(무역협회), 공급망모니터링실(KOTRA) 등으로 구성(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가상의 조직)

- ① 정부 부처, KOTRA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에서 수집된 국내외 공급망 동향 심층 분석
- ② 글로벌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파악, 전파 및 대응조치 등 제언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 지원

◆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 산업, 무역·통상,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협단체·연구기관 등 현장 중심의 민·관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를 개최(22.3.21)하여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개편 前(12개)	개편 後(29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매주 1회(목요일) 발간 中 (3.3일~)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로 메일 송부(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배포)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 필요 품목에 대한 문의·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11. 23. 수)

[환율]

	'20.12.31	'21.12.31	'22.10.31	'22.11.18	'22.11.21	'22.11.22	전일비	21말비
₩/U\$	1,186.30	1,188.80	1,424.30	1,340.30	1,354.70	1,356.60	+0.14%	+14.12%
선물환(NDF, 1월물)	1,186.30	1,190.00	1,424.90	1,339.80	1,355.00	1,356.70	+0.13%	+14.01%
₩/CNY	166.04	186.51	194.31	187.99	190.02	190.24	+0.12%	+2.00%
₩/Y100	1,051.19	1,032.48	963.19	958.32	963.03	956.29	-0.70%	-7.38%
Y/U\$	103.34	115.14	147.77	139.86	140.67	141.86	+0.85%	+23.21%
U\$/EUR	1.2279	1.1318	0.9941	1.0364	1.0277	1.0251	-0.25%	-9.43%
CNY/U\$	6.5305	6.3681	7.2800	7.1287	7.1588	7.1603	+0.02%	+12.44%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11.21 (전일)	'22.11.22				
					전일(11.21比)	'21년최저比	'21년말比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84.40	82.40	▼2.0 -2.4%	▲32.4 +64.6%	▲5.3 +6.8%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99.10	94.20	▼4.9 -4.9%	▲6.9 +7.9%	▼26.6 -22.0%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8,047.00	7,996.00	▼51.0 -0.6%	▲240.5 +3.1%	▼1,696.0 -17.5%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369.00	2,394.00	▲25.0 +1.1%	▲442.5 +22.7%	▼412.0 -14.7%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4,850.00	25,700.00	▲850.0 +3.4%	▲9,793.0 +61.6%	▲4,775.0 +22.8%

[반도체]

	'20	'21	'22.8	'22.9	'22.10	11.17	11.18	11.21	11월(~21)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2.76	2.51	2.41	2.16	2.16	2.16	2.18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1.9%	+8.0%	-34.0%	-32.7%	-32.4%	-31.8%	-31.9%	-31.9%	-32.5%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6.57	6.57	6.57	6.53	6.53	6.52	6.54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7.0%	+32.8%	-4.2%	-5.4%	-9.6%	-11.3%	-11.3%	-11.5%	-11.1%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0.28	'22.11.7	'22.11.11	'22.11.18	전주(11.11比)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1697.65	1579.21	1443.29	1306.84	-9.5%	-74.1%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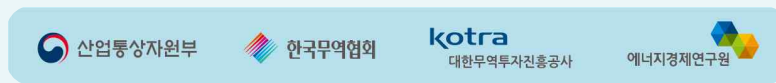
구 분	'21.12.24	'22.8.31	'22.10.31	'22.11.16	'22.11.17	'22.11.18	전일(11.17)比	'21년말비
BDI	2217	965	1463	1288	1228	1189	-3.2%	-46.4%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제작 기관



협력 기관

